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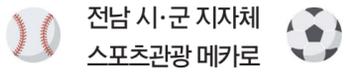
광주 스포츠 관광·전남 전지훈련...선수와 함께 경제가 뒀다



전지훈련을 위해 여수를 찾은 청소년야구팀 선수들이 전남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며 몸을 풀고 있다. <전남도 제공>



강진군은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 참가 선수 수백여명을 12척 배에 태워 대회를 치른다. <강진군 제공>



전남 시·군 지자체 스포츠관광 메카로

<중> 스포츠 마케팅 현주소

해남지역 소상공인들은 매년 겨울이면 찾는 스포츠 선수들로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매년 겨울 같으면 살만 하겠다"고 말하는 소상공인들도 적지 않다. 전지훈련을 위해 해남을 찾는 선수와 임원, 학부모들 발걸음 호텔·모텔, 식당가는 물론, 관광지 등 해남 읍내가 북적이기 때문이다. 해남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 9월까지 1년 간 17개 대회가 치러지면서 209개 팀 9만 3000명이 넘는 선수·지도자들이 해남에 머물렀다. 네팸·인도네시아-태국-우즈베키스탄 근대 5종 선수들 40여명도 일주일 가량 머물며 해남을 둘러봤다.

강진군은 올 들어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라는 명칭의 해양레저스포츠 대회를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6월부터 피싱 마스터스라는 타이틀로 ▲아피스컵(APIS) 두족류 선상낚시대회 파이널라운드(I·II) ▲시마노프감성돔 선상낚시대회 파이널라운드 I·II ▲한라컵 감성돔 마스터스 챔피언십 등 8개 대회를 치르며 낚시객들을 끌어들이었다. 올해 1500명이 넘는 선수·가족 대부분이 1

광주, 방문 팬 연계 상품 버스·KTX 이용, 1박 2일 일정 숙소 제공 전남, 광역 지자체 최초 전후 팸투어 개최 ... 1년 간 73만 여명 방문

박 이상 머무르면서 대회에 참여하고 음식점, 관광 명소 등을 둘러본다는 게 강진군 설명이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체류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것, 광주-전남을 비롯한 모든 자치단체들의 최대 현안이다. 특히 지역만의 강점을 담은 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해야 눈길을 끌 수 있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먼 지역일수록 차별화에 승부를 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스포츠 마케팅은 전례의 기후 환경을 가진 광주-전남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꼽힌다.

KIA 타이거즈, 광주 FC 등 국내 프로야구·축구 등 인기가 뜨거워지면서 관련 관광·체류형 상품 발굴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광주, 프로 스포츠 활용한 관광 상품 발굴=광주시는 광주관광공사를 통해 야구(KIA)-축구(광주FC)-배구(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등 지역 스포츠를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상품들은 모두 타지에서 광주를 찾은 스포츠 팬

이 버스나 KTX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1박 2일 일정으로 숙소까지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KTX와 호텔을 동시에 내놓은 '레일텔' 상품은 '직관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왕복 열차료와 경기 티켓, 숙박비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구는 버스·KTX 상품을 운영 중이다.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1일 차 양동시장-KIA 타이거즈 역사관-스토어-경기 관람-숙소 복귀·휴식, 2일 차 동명동 카페 거리-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중심사-서울 복귀 등 일정으로 이뤄진다. KTX를 이용하면 경기 관람의 자유 일정이다.

축구 역시 버스와 KTX 상품이 있다. 버스 상품은 1일 차 양동시장-꼬꼬네 광주FC 팬샵-경기 관람-숙소 복귀·휴식, 2일 차 동명동 카페 거리-ACC-중심사-서울 복귀 등 일정이며 KTX는 경기 관람 외 자유 일정으로 이뤄졌다.

배구는 KTX 상품만 운영 중이며 경기 관람 외 자유 일정이다.

광주관광공사는 KTX 상품을 이용해 경기 관람 외 자유 일정인 이들에게 별도로 즐길 거리나 선수 추천 맛집 등을 소개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상품들을 모바일 흡소포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활용한 점도 이색적이라는 평가다.

광주시는 공영방송 지역 특화 관광 상품 지원 공모에 당선돼 스포츠 연계 관광 상품들을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흡소포고에 송출해 판로를 확대했다.

광주관광공사 관계자는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홈 좌석 시즌권 연계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등 광주를 찾는 '직관 팬'에게 좋은 기억을 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남, '전지훈련 성지', '해양레저스포츠' 명소 마케팅=전남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온화한 날씨와 전례의 해양 환경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남의 경우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간 전지훈련 및 스포츠대회에 73만 3000명이 찾았다. 이들로 인해 거둬들인 지역경제효과도 673억여원에 달한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지역을 찾은 전지훈련 선수·지도자 등은 37만 5700명(2019-2020년)→7만 775명(2020-2021년)→37만 245명(2021-2022년) 등으로 증가했다.

해남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 9월까지 1년 간 찾은 선수·지도자들만 209개 팀 9만 3000명에 달했다.

강진도 같은 기간 연인원 8만 2000명이 넘는 선수·지도자들이 머무른 날만 2000일이 넘었다.

전남도는 최적의 전지훈련지인을 자리매김한 만

큼 올해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난 31일부터 전지훈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 설명회 및 팸투어'를 진행했다.

전남도는 설명회에서 온화한 기후, 풍부한 관광 자원, 맛깔스러운 남도음식으로 대표되는 전남 전지훈련 유치 여건, 지역별 체육시설 인프라, 전지훈련 시·군별 지원 인센티브 제도 등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전남을 10년 연속 전지훈련지로 선택한 경기도 중학교 사이클팀과 8년째 찾아온 충남 육상팀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전했다. 동부권(순천), 중부권(화순), 서부권(해남) 3개 지역으로 나눠 우슬체육관, 팔마체육관, 하나스포츠센터 등을 둘러보는 팸투어도 진행해 호응을 이끌어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지훈련팀의 실력과 능력 향상을 통해 전지훈련 최적지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의 '수산물'인 점을 활용, 낚시대회를 비롯, 요트대회 등 해양레저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가 하면, 국내 유일한 F1 경주장을 활용한 이색 캠프대회-모터사이클 대회(영암) 등을 추진해 눈길을 붙잡는 시도도 꾸준히 하고 있다.

강진군의 경우 '피싱마스터' 낚시대회 일정을 전후로 다양한 지역 행사를 기획, 추진하면서 여행객 9500명의 발걸음 강진에 머물도록 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윤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가"라고 묻자 "현재로서는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린 국정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개원식 불참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국무총리실은 윤 대통령에 이번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총리의 연설문 대독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직접 하고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이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이 매년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지지율 19%...정부 출범 후 최저

갤럽 조사, 대구·경북 18%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경신해 19%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9%, 부정 평가는 72%로 각각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 9월 2주차, 10월 4주차 조사에서 기록한 20%에서 1%포인트(p) 더 내려가 집권 이후 최저치다. 갤럽 집

계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p 올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대구·경북(TK)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8%p 하락한 18%를 기록했다. TK 지지율이 10%대로 나타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전국 평균 지지율(19%)보다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진 TK 지지율이 1%p 낮게 나왔다. 서울은 22%, 인천·경기 16%, 부산·울산·경남 22%, 대전·세종·충청 29%, 광주·전라 6%였다.

성향별로는 보수층 지지율은 33%였고 중도는

14%, 진보는 4%였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33%), '의대 정원 확대'(8%), '전반적으로 잘한다'(6%), '결단력/추진력/투심',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5%), '주관/소신', '국방/안보'(이상 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17%), '경제/민생/물가'(14%),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소통 미흡'(이상 7%), '외교', '의대 정원 확대'(이상 5%), '독단적/일방적'(4%), '부정부패/비리', '통합-협치 부족', '경향-자질 부족/무능력'(이상 3%) 등이 포함됐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함께 잇는 지방시대 활력주는 대한민국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일시 | '24. 11. 6.(수) ~ 11. 8.(금) 3일간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송암스포츠타운)
 온라인 | www.regionexpo.kr

